내 인생의 재료 하나님 이름

(에스겔 42:1~20)

13. 그가 내게 이르되 좌우 골방 뜰 앞 곧 북쪽과 남쪽에 있는 방들은 거룩한 방이라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거기에서 먹을 것이며 지성물 곧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거기 둘 것이니 이는 거룩한 곳이라
14. 제사장의 의복은 거룩하므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에 바로 바깥뜰로 가지 못하고 수종드는 그 의복을 그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고 백성의 뜰로 나갈 것이니라 하더라
15. 그가 안에 있는 성전 측량하기를 마친 후에 나를 데리고 동쪽을 향한 문의 길로 나가서 사방 담을 측량하는데
16. 그가 측량하는 장대 곧 그 장대로 동쪽을 측량하니 오백 척이요
17. 그 장대로 북쪽을 측량하니 오백 척이요
18. 그 장대로 남쪽을 측량하니 오백 척이요
19. 서쪽으로 돌이켜 그 장대로 측량하니 오백 척이라
20. 그가 이같이 그 사방을 측량하니 그 사방 담 안 마당의 길이가 오백 척이며 너비가 오백 척이라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내 인생의 재료 하나님 이름>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내 인생의 재료 하나님 이름'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본문에 반복해서 등장한 오백 척이라는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짚고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한 척이 55cm 정도이기에 오백 척이란 미터로 환산하면 약 275m정도가 됩니다. 마당을 다 포함한 성전의 길이가 가로 세로 약 275m의 정방형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인생을 이루어가는 재료는 하나님 이름입니다. 하나님 이름이라는 하나의 재료만 사용할 때에 인생은 완벽한 성공을 기가 막히게 이루게 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잘 드러내는 예가 있습니다. 톨스토이의 종교적 단편 소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천사 미카엘은 쌍둥이를 낳은 어머니의 영혼을 거두어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그런데 두 아기가 클 때까지만 기다려 달라는 어머니의 애원을 듣게 되고 천사는 마음이 약해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천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래도 그 여인을 데려오라고 하시며 “사람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한 답을 알게 되면 다시 천국으로 돌아오게 되리라는 숙제를 내주십니다.

결국 미카엘은 여인의 영혼을 빼앗았고 이 과정에서 여인의 시체에 깔린 한 아기는 다리를 절게 됩니다. 그런데 여인의 영혼을 하늘로 올려 보낸 후에 미카엘은 폭풍을 만나게 되었고 땅으로 추락하게 됩니다. 이때에 구두장이 세몬이라는 사람에게 발견되는데, 이 세몬의 인상이 지독한 것을 보고 도움을 받을 수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생각과는 달리 세몬은 미카엘을 집으로 데려와 돌보아주었고, 처음에는 부랑자를 데려왔다며 불평하던 세몬의 아내인 마트료나도 “당신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느냐”라고 묻는 남편의 질문에 뉘우치고 미카엘을 함께 보살펴주게 됩니다. 그리고 미카엘은 세몬에게 구두수선 기술까지 배워 함께 일을 하게 됩니다. 이때에 미카엘은 구두장이 세몬과 아내 마트료나의 마음에서 사랑을 발견하게 되고 첫째 질문이었던 “사람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는가?”에 대한 답을 얻게 됩니다.

시간이 흐르고 어느 날 부자가 찾아와서 좋은 가죽을 주며 일 년을 신어도 닳지 않는 멋지고 튼튼한 구두를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가죽이라도 닳지 않을 수는 없었기에 세몬은 걱정에 사로잡힙니다. 그런데 미카엘은 천사시절 때에 동료였던 죽음의 천사가 부자 옆에 붙어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가죽으로 구두를 만들지 않고 장례용 슬리퍼를 만듭니다. 세몬은 왜 구두를 만들지 않았느냐고 화를 내지만 도중에 부잣집에서 하인이 와서 주인이 죽었음을 알리며 장사를 지내야 하기에 장례용 슬리퍼를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 미카엘은 두 번째 질문인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얻습니다. 사람은 자신에게 진정으로 무엇이 필요한가를 아는 지혜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6년의 시간이 지나고 미카엘은 자신이 영혼을 거두었던 쌍둥이 엄마의 두 딸을 만나게 됩니다. 당시에 그 엄마는 자신이 없으면 딸들이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미카엘도 그렇게 생각해 영혼을 거두기를 주저했었습니다. 그런데 죽을 것이라고 걱정했던 두 딸을 이웃에 살던 방앗간 집에서 거두어서 친딸처럼 잘 키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쌍둥이에게 구두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구두 방에 온 것입니다. 미카엘은 이 모습을 보고 세 번째 질문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한 답을 알게 됩니다. 바로 사람은 이웃으로부터 주어지는 관심과 사랑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던 세몬의 아내인 마트료나가 “아이들은 부모 없이는 살아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며 고백을 하자 모든 숙제를 마친 미카엘은 자신이 알게 된 진리를 설파한 뒤 하늘로 되돌아갑니다.

한편 오늘 에스겔서는 톨스토이의 세 가지 질문이 성전의 담이라는 하나의 소재에 함축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에스겔이 환상으로 본 성전은 동서남북이 각각 약 275m 길이의 담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본래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기 위해 택하신 장소입니다. 그리고 선민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과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음이 번제단에 드려진 상태에서 불러야만 합니다. 이 성전이 하나님의 이름을 의미하는 것으로부터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삶을 이루어가고 훌륭하게 완성하고 다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는 삶의 재료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생은 완벽하게 채워지고 진행되어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기만하면 내가 이웃을 향해 베풀어야 될 사랑이 생깁니다. 톨스토이는 지혜가 주어지지 않았다고 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는 지혜도 생깁니다.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다른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도 주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민을 출애굽 시키시고 시내산에서 부부의 혼인언약을 맺으신 후에 가르쳐주신 내용도 바로 이와 같았습니다. 풀 한 포기, 물 한 방울 없는 광야에서 250만 명의 선민들이 무려 사십 년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사십 년 동안 하나님이 가르치시고자 하셨던 것이 바로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한 답이었습니다. 이 광야에서 선민들에게 주어졌던 것은 오직 하나님 이름뿐이었습니다.

다윗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목동을 하던 다윗은 똑같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에게 승리를 거두었고, 하나님의 이름을 재료로 삼아 왕 노릇을 하며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이루어내게 됩니다.

나의 외모, 태어난 집안, 인간관계, 물려받은 유산, 나의 직업이나 지위, 인기나 명예, 스펙과 학벌, 타고난 재주 등이 삶의 재료가 아닙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재료로 삼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재료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결코 인생을 채우는 재료가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사용해야 될 유일한 재료는 하나님의 이름뿐입니다.

우리가 읽은 부분은 성전 건물에서 나와 뜰을 지나면 북쪽과 남쪽에 제사장들의 방이 나옵니다. 그리고 성전의 담에 대한 수치가 나오면서 성전에 대한 묘사는 끝이 납니다.

제사장들이 드리는 제사 중에서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희생제물은 제사장들의 몫이었습니다. 화목제는 제사장과 봉헌한 사람이 함께 먹었고, 제사장들만 구분되어 먹는 지성물로 불리는 것이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이었습니다. 드려진 제사물을 먹을 때에는 각자의 방에서 먹었고, 다른 방들에는 제사물이나 제사장들의 예복이 구분되어 보관되

었습니다.
이렇게 제사장들의 방이 언급되는 이유는 회복된 선민들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제사장처럼 살아야 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일상 속에서 선민은 성전의 제사장처럼 구분되어야만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라고 한 것과도 상통하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삶의 현장에서 성전의 제사장과 같은 삶이 가능하다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선민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제사입니다. 제사장이 날마다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삶의 현장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선민의 직무는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만인제사장설도 이로부터 근거된 이론입니다.
선민이라면 직장에서 일할 때에도 학교에서 공부할 때에도 주 업무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심지어 먹고 마시는 것도 제사의 연장입니다. 제사장의 식사가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을 받아서 먹는 것이었듯이, 선민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먹고 마십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옷을 입었듯이, 선민이라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입습니다. 또 제사장들이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방에 머물렀듯이, 선민은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곳에서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의식주를 해결해기 위해 수고하고 얼굴에 땀을 흘리며 직업 활동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선민들은 겉으로는 똑같이 일하며 사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분명히 내가 일해서 번 돈으로 지불하며 사는 것은 똑같은데 무엇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일까요? 말씀드렸듯이 선민의 삶의 주 업무는 제사를 지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제사장의 삶이 실제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여러분의 삶이 어떤지에 대해 생각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벌어서 의식주를 해결하고 있는지 혹은 하나님이 주셔서 의식주가 해결되는지에 대해서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으레 하나님이 주셔서 살아간다고 말은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의식주로 살아간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내가 삶에서 해나가는 수고와 노동이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노력이 개입될 수밖에 없으니 하나님께 받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의 경우에도 광야에서 선민들에게 만나를 주시듯이 주어지지는 않기 때문에, 다만 내 노력으로 벌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다는 마음가짐을 갖는 정도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다면 사실 믿음이 좋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란 내가 노력해서 얻었고 돈 주고 사는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지불해서 얻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고 계신다는 상황을 사실로써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남녀가 결혼해서 부부가 됩니다. 이 부부 사이에는 서로를 배우자로 믿는 믿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눈앞에 있는 사람이 배우자임을 인지할 뿐입니다. 자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앞에 있는 아이가 아들이고 딸이라는 것을 믿는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먹는 것이나 입는 것이나 내가 사는 집이 월세든 전세든 자가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보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의 의미는 최초의 안식일을 생각해보면 명확해집니다. 아담이 깨어나서 처음 의식을 가졌을 때에 하나님을 마주 대하게 되었습니다. 이때가 최초의 안식일입니다. 아담의 마음에는 오직 하나님만 계셨습니다. 하나님을 첫 번째 대상으로 마주하며 하나님과 연합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마음의 첫 번째 대상으로 모시게 되면 내가 하는 일조차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보게 됩니다. 믿어야겠다는 의지로 믿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듯이 체감되는 것입니다. 일해서 사장님으로부터 월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최초의 안식일에 하나님과 연합했던 것처럼 연합한 사람은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있음이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시고 또 28절에서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30절에서는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라고 말씀하신 바가 이와 같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이 백합화를 입히신다고 믿으려고 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백합화를 실제로 입히고 계심을 보시는 중입니다.
의식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삶의 문제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만으로 살았던 제사장과 같은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로 여겨집니다. 공자의 효경(孝經)에 나오는 신체발부 수지부모 불감훼상 효지시야(身體髮膚 受之父母 不敢毁傷 孝之始也)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신체와 터럭과 살갗은 부모에게서 받은 것이니, 이것을 감히 손상시키지 않는 것이 효의 시작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부모로부터 오기 전에 우리 몸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또한 삶은 지금도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있습니다.
주일날 말씀드렸습니다만 신앙인이라면 건강과 외모에 대한 정의조차도 새로워져야만 합니다. 건강이란 단순히 육체에 병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이 내 육체를 주관하시고 계시는 방식입니다. 이것을 바로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담의 첫째 날과 같이 마음으로 하나님과 연합된 상태의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있음이 보입니다.
이 의미가 오늘 본문에서 성전의 담을 통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을 둔

곳입니다. 이름을 두었다는 것은 이름을 부르기 위한 곳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성전의 방식을 따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아담의 첫째 날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게 되고, 삶의 현장에서 몸의 터럭과 살갗으로 시작해서 모든 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에 인생의 문제라고 여겼던 일들의 70~80%는 그 자리에서 해결될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냐는 것입니다. 에스겔 시대의 선민들에게는 이미 성전이 파괴된 뒤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 마음으로 생각하는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다.
삶에서 벌어지는 사건과 문제들을 담은 마음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도망간 삶의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의 부활과 승천에 참여함을 통해 “내 마음을 하나님의 존재로 채워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몸이 있는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뜻이 충만해지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주님을 따라 승천한 마음은 하나님의 존재로 충만해지기를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십자가에서 나 자신의 죽음을 고백함을 통해서 제사를 반복해 나가야만 합니다.
삶에는 육체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사건과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때에 마음이 십자가로 도망가서 몸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뜻으로 충만해지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면 나의 육체로부터 시작해서 접해있는 모든 것들에 임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사실로써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억지로 믿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듯이 인지되고 체감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의 70~80%는 더 이상 문제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내가 해결해야 된다고 여기기에 문제인 것이지,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이 분명하다면 문제로 여겨질 수가 없습니다.
굳이 70~80%만 문제로 여겨지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칼로 무 자르듯이 단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대면은 결코 기계적인 과정일 수 없습니다. 제사가 지속되어야 하는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는 100% 믿음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절대적이고 완벽한 믿음을 가질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처럼 완벽할 수 있다면 날마다 죽는 제사를 드려야할 이유도 없습니다. 바울조차도 예수님의 죽음을 짊어지고 다닌다고 했고 날마다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렇기에 제사장이 날마다 상번제를 드리듯이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이는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땅에 대해서 또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의 이름만을 부르기를 지속할 수 있습니다. 땅을 향해서는 나의 마음이 빠져나온 육체의 연관성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 하나님의 뜻이

충만해지기를 기도하고, 하늘을 향해서는 빈 마음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 채워지기를 기도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억지로 마음에 담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허락해주셔야만 합니다. 우리는 오직 이것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끊임없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해 아담의 첫 번째 안식일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성전이 하나님의 이름을 의미하고 성전의 담이 구분됨을 의미하듯이 제사가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의 재료는 하나님의 이름뿐입니다. 십자가에서 땅을 향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늘을 향해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삶은 완성되어갑니다. 땅을 향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곧 땅을 등지는 것입니다. 돈 문제 건강문제 가족문제 직장문제 승진문제 등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재료로 삼아야만 합니다.

새벽에 일어났더니 어떤 집사님이 메일을 보내셔서 읽어보았습니다. 아는 집사님이 늘 세상 걱정에 찌들어 살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항에서 선교를 떠나는 전도사님이 “그 눈물의 양이 다 차면 하나님의 큰 위로가 주어질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날마다 삶의 문제를 끌어안고 울고 우울해 하던 그 친구 집사님은 그로 인해 위로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이 집사님의 십자가 생활화에 대한 흔들림이 생겼다고 합니다. 십자가 복음에서는 세상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마음에 담지 말고 하나님만을 담기 위해 죽어야 한다고 하는데, 그 전도사님께서는 세상 문제를 끌어안고 슬퍼하는 동안 하나님의 위로가 나타날 것이라고 하니 혼동이 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세상 문제로 눈이 퉁퉁 붓도록 울면 하나님의 위로가 주어질까요? 이제까지 그렇게 믿고 사셨지 않습니까? 강단에서 성도들을 위로한답시고 이루어진 설교가 그래왔지 않습니까? 말씀드렸듯이 마음에 하나님 이외의 세상을 담는 것이 죄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30절에서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으로 인해 슬퍼하고 우는 것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18절에서 “항상 기뻐하라 / 쉬지 말고 기도하라 /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한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했는데 세상 문제로 울어야 한다면 이 말씀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 전도사님께서 무슨 근거로 성경에도 없는 말씀을 하셨는지에 대해 의문스럽습니다.
선민에게도 안타까워하며 울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 24절에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말했습니다.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문제들에 마음을 빼앗김을 슬퍼하는 것입니다. 처음 눈을 떠서 하나님을 마주했던 아담의 마음을 회복해야만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이 잘 되지 않을 때에 울

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잊히고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는 것을 슬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이유는 세상과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자녀가 들어오고 배우자가 들어오고 돈이 들어오고 건강문제가 들어와 있는데 하나님과 가까울 수는 없습니다. 제사장으로써 이렇게 세상이 들어온 나의 마음을 제사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 방향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죽이는 제사를 드리면서 삶에 하나님의 뜻이 충만하시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내 마음에 하나님의 존재가 충만하시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성전은 담으로 구분된 곳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둔 곳이었습니다.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구분되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만 합니다. 그러면 성전 안에서 살아가는 제사장의 모습이 우리의 삶에 현장에서도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늘을 향하고 하나님을 불러서 하나님으로 채워진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면 이 세상 모든 문제조차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체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에 비로소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채워졌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세상의 어떤 일보다도 크게 느끼기 때문에 쉬지 않고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쉬지 않고 기도함의 의미입니다.
인생의 재료는 다른 어떤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이름만이 내 인생의 재료입니다. 십자가에서 두 번의 이름 부르기를 반복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십자가 생활화로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이 등진 땅에 하나님의 뜻이 임하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또 나의 마음이 향한 하늘에서 하나님의 존재로 채워지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두 번의 이름 부르기를 통해서 땅에는 하나님의 뜻이 임하고 마음에는 하나님의 존재가 임하시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